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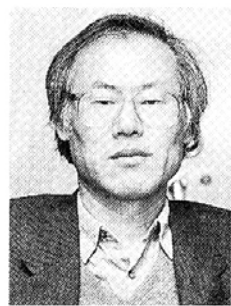
시론

국민은 뒷전인가

요즘 북중공작 사건이 정치권의 정쟁으로 비화되고, 언론들은 사건의 본질을 다루기 보다는 관련정 치인이 누구인지, 권영해의 자해행 위가 자살기도인지 등 선정성 위 주로 다루고 있어 정작 1백만에 가까운 실업자의 생존문제가 뒷전 으로 밀려나고 이에 대한 분노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 북중논쟁 몰두 | 실업문제 등 민생 소홀

국민들은 북중공작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서 IMF와 실업자의 삶 의 문제에 정치권을 비롯한 국가 에너지가 집중되기를 바라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북중공작사건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지만 이 일은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다. 우리는 과거 수십년 동안 선거만 되면 공 안정국, 간첩사건, 북 중. 빨갱이 마녀사냥 등이 주기적으로 계속되어 결과적으로 정부·여당이 승리한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북중 공작과 같은 정권안 보를 위한 공작이 이제까지 자행되어 왔 지만 정권교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은폐 되어 왔음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강정구 (동국대 교수·사회학)

이번을 계기로 철저한 진상규명, 지위 고하를 막론한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민주화, 정치발전, 인권보장 등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이었던 정권 안보용 공작정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건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흐리는 정치공세 등에 비판적 인식을 가져야 한다. 북중공작에 최소한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구 집권당인 한나라당이 반성과 자숙을 하기는 커녕 북중공작에 대한 수사를 마치 '야당탄압'이나 '정계개편의 수순'으로 몰아붙여 서 검찰의 수사방향에 흡집을 내 어 사건의 본말을 전도하는 행위 와 사건을 은폐하려는 은폐기도 등의 반개혁을모를 간파해야 할 것이다. 실업자 문제 등이 중요하 지만 경제문제 때문에 이 북중공 작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은 본의아니게 반민주세력 과 수구세력의 숨겨진 반개혁 을 모를 지원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북중공작에 대한 수사방향이 '진실규명 차원에서 조용히 수사 한다'는 방침대로만 진행되었다면 전 전 실업자 문제 등 경제문제 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을 것이 다. 본질을 호도하고 정치공세를 펴면서 정쟁거리로 만든 것을 간 과한 채 정치권 전체를 양비론적 으로 몰거나 사상은정만을 재연시 키다면 개혁전반을 파국으로 몰고 가 IMF극복의 경제정책도, 실업자 생존권 보호문제도, 민주주의와 정치발전의 문제도 모두 망쳐 버리 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새 정권의 통일정책은 인위적 대북흡수통일정책이 아니라 남북 화해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점진 적 통일이다. 과거 정권은 정권안 보차원에서 북한을 앞세워 왔다. 적대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던 대북공작 은 이제 근본적인 방향 선화를 하여 야 한다. 오히려 대의 산업정보업무 나 남북 북을 아우 르는 민족안보를 중시해야 한다. 그러므로 새로운 목 적지향, 곧 대외정 보 중시에 맞게 안 기부의 전면적인 물갈이는 필수적 이다.

이 문제로 대북 관계가 경색되어서 는 안된다. 이제까

지 남과 북은 공작과 역공작의 연 속이었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인 명과 재산의 손실은 물론 상호 적 대감만 증폭시켜 왔다. 남과 북은

나라 망치는 대북공작 | 이제 방향 선회하자

50년간 적대관계를 지속해 왔기 때문에 통일의 그 날까지 남북간 에는 아주 사소한 다툼이 줄지을 것이다. 그때마다 남북관계가 경색 되어 버리면 이야말로 반대자 성 가셔서 민족통일의 큰 집인 초기 삼간을 불태우는 잘못을 저지르는 셈이다. 서로 인내하고 작은 일은 작은 일로 처리하는 민족적 예지 를 통일의 그 날까지 발휘해야 한 다.

이렇게 북중공작사건 해결에 올 바른 해결방향을 가질 때 실업자 의 문제도, IMF 극복이나 민주주 의 문제 등도 우리 사회의 전반적 인 개혁을 바탕으로 착실한 진전 을 기할 것이다.

'국민정부' 각료 18명의 종교별 분포는 개신교 8명, 천주교 4명, 불교 2명으로 밝혀졌다. 특히 종교관련 부사인 문화관광부 장관에 개신교신학자가 임명된 것에 대해 불교계의 우려가 있었다. 여기에 전 통사찰의 유지와 관리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내정자 까지 개신교 집사인 것으로 알려지지 불 교계의 우려는 분노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또다른 시각은 정부인사를 하며 종교 까지 따져야 하는가라고 지적하며, 차제에 인재양성을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자성론도 있다. 국민정부의 인사 와 관련, 불교계의 의견을 들어본다.



◇새 정부 인사를 두고 종교편향이라는 불교계의 비판이 거세다. 그러나 "인재등용에 종교까지 따질 필요가 있느냐"는 목소 리와 더불어 불교계의 '사람키우기' 자성론도 일고 있다. 3월16일 김대중대통령이 주재한 첫 경제대책조정회의.

열린마당

새 정부 인사와 종교편향

기독교인위주 인사 과거정권 답습

무관 (동국대 석림회장)

총립 동국대학교 를 졸업한 스님들의 모임인 석림회는 최근 단행된 각료인선 과정에서 특정종교 가 배제되었던 점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다. 그런데 문화관광부에 이어 불교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에 개신교 인사를 내정했다는 것은 김대중대통령이 선거 당시 공약한 "국립공원관리공단 운영에 불교계의 이해를 최대한 반영하겠다" 는 말과 전면 배치되는 것이다. 불교계 의 입장이 반영되었는가라는 의구심을 감할 수 없다. 전통문화 보존의 최소한의 의지마저 저버리지 않을까 하는 조바 심도 든다. 어느 기구의 대표이든 대표 가 갖는 권한이 큰 영향을 미치므로 누 가 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전이사장이 국립공 원 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를 분리징수하 겠다고 말해 불교계와 갈등을 빚은 적이 있었다. 당시 이사장의 불교계에 대한 이해부족이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 불과 몇 달 전의 일이었다.

반세기만에 이루어진 정권교체는 여-아간의 정권인수 차원의 의미를 넘어 그 동안 기독교 세력에 의해 조성된 부조리 와 부패문화를 하나씩 해소해가는 것과 국민, 지역, 종교간의 화합을 통해 올바른 정신문화를 창출하고 국민대화합을 실현하는데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특정 종교를 배제하고, 각계의 의견수렴보다는 이해에 친착한 각료인선은 정권 교체 의 올바른 의미를 새기지 못하는 것이며, 과거 정권이 행한 종교편향을 답보하는 행 위이다. 이에 불교계를 비롯한 각계의 다 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안목, 충분한 식견을 가진 사람들 선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종교간 형평성 최소한 유지해야

김춘길 (전불련 집행위원장)

김대중정부 출범 이후 불교계에서 우려하던 바가 나타나고 있다. 신임각료 인선과정에서 나타 난 종교간의 형평성 문제가 김영삼정부 출범 초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사실 불교계는 김대중정부에 기대를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선거기간 중 김영삼 전대통령처럼 자신의 종교적 색채를 드러내지 않았을 뿐더러, 오랜 기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의 합리성에 기대를 가졌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불교계는 그런 기대 못지 않은 우려를 하고 있다. 문화와 관광과 고 종교업무를 책임지는 문화관광부 장관에 기독교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임명 되었고, 불교계와 밀접한 이해 관계를 가진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에 개신교 집사이며, 사실 묘지 사장으로 알려진 사람이 내정되었기 때문이다.

얼마 전 불교계 여러 단체들이 새정부 인선에 나타난 특정종교 편중의 문제점 을 지적하고 "이와 같은 인사를 볼 때 과연 김대중정부가 내세웠던 국립공원입 장료 폐지 등의 공약이 제대로 지켜졌 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었다. 각료 인선 에 종교간의 균등한 배분을 주장한 것은 아니다. 다만 종교간의 형평성을 최소한 이나마 유지해야 한다는 것과 전통문화 와 관련된 부처나 공단의 책임자는 전통 문화에 대한 정서와 이해를 가진 사람이 임명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국립공원의 많은 부분이 사찰 재산이고, 국립공 원의 유지는 전통 사찰의 문화적 보존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는 것은 상식에 다 를 아닐진데, 여기에 불교인이 되지 는 못할지언정 기독교인이 임명되었다면 누 가 보아도 부당한 처사가 아니겠는가.

인재등용에 종교까지 따지나

김재일 (동산반이회장)

대한민국 정부수 립 50년만에 첫 정 권교체를 이룩한 새 정부가 탄생했다. 그러나 새정부의 내각 과 정부요직에 불교 계 인사는 거의 없 다. 심지어 불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화관광부 장관에 이어 국립공원관리공 단 이사장마저도 개신교 인사가 내정됐 다는 보도다.



"국민의 정부"를 내세운 김대중정부가 종교를 따져가며 인사를 했을까. 국가경 영이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할 정부 인사를 두고 종교까지 따질 필요를 느끼 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과거 정권의 기 독교 일색의 편중된 인사 결과 정부와 불교계가 갈등을 빚었던 사실이 있어 의 구심마저 거두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작 이렇게 된 1차적인 원인은 우리 내부에서 찾아볼 일이다. 불교 인들이 정부수립이나 자치단체장 탄생에 관심이 미약했다는 것도 문제다. 불교적 소양을 갖춘 지도자를 양성하거나 후임 하려는 움직임은 거의 없었다. 불교계의 국가 지도자 양성 내지 후임에 대한 인식 이 부족했다는 점을 각성해야 한다. 불교정신을 가진 지도자를 양성하고 후 원해 불교계에 유리한 정책을 펴낼 수 있는 지도자 양성이 시급하다.

이번 김대중정부 인사에서 경실련에 참여했던 김성훈 김태동교수의 입장은 우리 불교계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 다. 이들은 시민·사회운동에 참여해 학 문의 성과를 현실에 반영했고, 현실참여 를 통해 자질과 개혁성을 검증받았다. 그러나 불교인의 참여는 아직도 많지 않 다. 시민·사회운동은 한때 반정부운동 으로 오해되기도 했지만, 불교의 말로 표현하자면 회향에 다름 아니다.

거사불교 활성화 등 교계 대책세워야

임동현 (조계종교사단사무국장)

최근 국립공원관 리공단 이사장등의 정부인사에 대해 지 나친 종교편향이 아 니냐는 지적이 곳곳 에서 제기되고 있다. 불교의 입장에서 는 당연한 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정부가 초기부터 종교간의 형평성을 의식적으로 고려하는 모습을 보여 왔을 을 상기할 때 무작정 정부 뒷안만 하는 것은 불교발전의 내일을 준비하는 것은 으로서의 의미를 놓칠 수 있다. 그렇다 고 정부를 두둔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 다. 비판은 하되 우리의 준비는 어때했 는가의 평가도 병행해야 한다.



어떤 집단이라 하더라도 발전을 기약 하기 위해서는 시설등 외형에 대한 투자 도 있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 람에 대한 투자이다. 컴퓨터등 아무리 과학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결국 일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종교 에서 사람의 중요성은 여타의 어떤 집단 보다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교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사람에 대 한 투자이다. 미래를 위한 투자는 그만 두고라도 현재의 사람조차도 놓치고 있 는 실정이다. 사람에 대한 이런 실정이 혹여 약화 양화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 기를 바랄 뿐이다.

일반 사찰의 법회등 신행프로그램을 살펴봐도 일정한 지적훈련을 거친 거사 분들이 참여할 공간이 없다. 일요법회를 비롯 여타의 신행활동에서는 더욱 말할 필요가 없다. 제가지도 분방 사부대중의 일원이지만 현실은 승가의 보조집단 또 는 신임인의 위치에 머물 뿐이다. 사정 이 이러하니 남신도들이 체계적으로 육 성관리되지 못하는 당연하고 불교의 이 런 사정이 이번 정부인사의 종교편향의 한 배경이 되는 것은 아닐까.

경전을 듣는 사람이면, 어리석음에서 눈뜨고 무명을 깨뜨려,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무소유 보살경-

1장의 CD에 25시간 분량의 부처님의 무량한 진리를 담았습니다! (세계 최초)

인켈 오디오북 「불경대전집」

- 수록내용: 천수경, 반야심경, 고왕경, 금강경, 화엄경, 산왕경, 부모은중경, 법화경, 지장경, 석가모니불 정근, 관음정진, 관세음보살보문품경, 나옹화상 발원문, 천지पाल신주경, 신심명, 보현행원품, 약사여래본원경, 관세음보살 사십이수주, 약사여래 불 정근, 관세음보살 정근, 지장보살 정근, 화엄성 중 정근, 마하반야바라밀 정근, 우리말 천수경, 우리말 아미타경, 우리말 반야심경, 회심곡, 명상의 말씀 등 불자님이 가장 많이 찾고 접하는 56가지 경전이 수록되었습니다. ● 듣고 싶은 경전 번호만 누르면 말씀이 바로 시작됩니다.



특별할인판매 40% 할인. 인켈 오디오북 플레이어(재생기) 485,000원, 불경대전집 25시간 CD 1매 70,000원, 삼국지 3매 70,000원. 총액 625,000원. 특별할인 33% 적용 시 420,000원. (세금 별도)

구입 문의: 판매원: 아울렛 유통(서울 용산) 문의전화: (02)3274-1196~7

주문방법: 전화 및 팩스 등으로 구매하실 상품의 가격을 확인후 입금하시면 상품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신용카드 할부가능) 배달방법: 입금 확인후 택배/오토카/고속/직배 등을 이용하여 5일내에 가정까지 배달하여 드립니다. 은행계좌: \*국민은행: 015-21-0955-947 \*농협: 011-01-430541 \*조흥은행: 952-04-132815 \*예금주: 이종주

